

달아오른 지방선거...일정까지 어겨가며 후보자 압축?

민주 고흥지역위 9월까지 2명으로
당 일정 지침 위배한 이례적 결정
“정치 신인 문턱 높인다” 지적
장흥도 군수 후보 예비경선 논의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보다 석 달 늦은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가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지방선거를 거쳐 1년 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가 올 9월까지 고흥군수 후보자로 2명을 압축하기로 하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다. 같은 지역위의 장흥에서도 군수 후보자 조기 예비경선을 추진했으나 일부 후보자가 반발하면서 불발됐다.

입지자 5명의 합의, 그리고 임시 대의원대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9월 조기 예비 경선을 치른다는 게 민주당 지역위 설명이지만, 적절치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22개 시·군 형평성이 어긋나고, 중앙당이 제시한 경선 참여 권리당원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진다”, “정치 신인에 대한 문턱 높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지난 18일 고흥군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의원들은 오는 9월 중 예비경선을 거쳐 현재 5명의 입지자 가운데 2명을 고흥군수 후보자로 압축하기로 의결했다. 권리당원, 일반군민 50%씩 여론조사를 하고, 신인의 경우 10% 가산하는 등 경선 방식도 정했다.

민주당 후보로 고흥군수 선거에 나설 입지자는 현재 5명이다. 공영민(67) 전 제주발전연구원장, 김학영(69) 전 고흥경찰서장, 박진권(49) 전남도

의원, 송영종(65) 전 순천부시장, 장세선(68) 전 고흥군의원이다. 이들은 합의를 거쳐 지역위원회에 예비경선을 조기에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천 과정을 막고 조기에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압축, 민주당 후보가 군수에 당선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예비경선 결정을 두고는 지역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일정을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역행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2022. 6. 1 실시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 일정표'는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내년 3월20일부터 받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60조의 2, 제1항)에 근거한 일정이다.

당헌에서 규정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심사, 경선 등이 특정 시기에 특정 선거구에서만 진행된다면 공정한 관리가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선거 중 특정 자치단체만 조기 예비경선을 하는 점도 형평성 문제에서 어긋나지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선거에서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점도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고흥군수 예비후보 압축을 위한 여론조사에 많은 권리당원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론조사에 권리당원 50%가 포함됐는데, 권리당원의 경우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만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2월까지 당원 등록을 하고 이후 6개월 간 당비를 납부한 당원만 이번 조기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2월 이후 가입한 권리당원들은 사실상 이번 고흥 군수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따라서 지역위원회가 중앙당의 지방선거 관리 지침에서 벗어나 실시하는 조기 예비경선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 신인의 문턱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도 따라붙는다.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위원장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운데)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겸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남 의원은 “내년 초 선거를 앞두고 치러질 민주당 경선에 추가 입후보자가 있다면 그들을 포함해 경선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알고 있으나 선거법은 물론 당헌당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흥에서도 내년 군수 후보자로 나설 입지자 7명이 최근 만나 조기에 예비 경선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가산·감산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국회 나온 현대산업 대표 “붕괴사고 진심 사죄”

불법 재하도급 의혹엔 ‘침묵’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지역의 재개발 시공사였던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고개 숙여 사죄했다.

권순호 대표이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불의의 사고, 앓았어야 할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과 희생을 당하신 분들 그리고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 권 대표이사는 “사고 원인에 대한 부분은 여러 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원인 규명과는 별도로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이 일상으로 가장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상을 당하신 분들과 가족분들, 놀라셨을 광주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말을 마쳤다.

권 대표이사는 지난 10일에도 붕괴 현장을 찾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 부상 치료를 받는 분들께 말할 수 없이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불법 재하도급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선 “철거공사는 A 기업과의 계약 외에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연합뉴스

민주 경선연기 제파 전면전...송영길 대표 “주자 의견 듣고 내가 결정”

최고위 찬반 엇갈려 결론 못낼 듯

주조 결정 가능성... ‘불가론’에 무게

대선 후보 경선 연기 여부를 놓고 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대표가 어떠한 결단을 내릴 것인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저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선 연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고위원들도 경선 연기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최고위는 경선 연기 여부에 대한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 그칠 전망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경선 연기 여부는 결국 송 대표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고위원회든, 의원총회든 어떤 회의를 열어도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의 선장인 송 대표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당무위에서 경선 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으나 그럴 경우, 당의 분열 양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를 반영하듯, 송 대표는 지난 18일 경선 연기 여부에 대한 의중 결의 및 당무위 의결 방법론과 관련, “경선 연기 여부는 의중 결의사항도 아니고 당무위 의결 사항도 아니다”라며 “당무위 회부 여부는 대표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또 “원칙을 변경하려면 전 후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들을 만나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송 대표는 이번 주말 대권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을 만나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송 대표는 이번 주 초 경선 연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저울추는 당초 일정대로 경선을 치르는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대선 지지를 4위안에 들어가는 3명이 경선 연기에 반대하고 있다”며 “당무위나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하는 경우, 당의 분열이 촉발될 가

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송 대표가 대선 입지자들과 접촉,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경선 일정 고수’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 캠프 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가 경선시기에 대해 일방적 결정을 선언한다고 해도, 이는 정치적 선언일 뿐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결정될 수 있다”며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낙연 전 총리 측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도 이날 “당 지도부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경선 일정 변경의 권한이 당무위원회에 있다는 당헌과 당규를 정면으로 무시한 비민주적 의사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지사 지지 모임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인 조정식 의원은 “마치 실력 행사하듯이 연판장을 돌리고, 지도부를 압박하는 것은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영길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분간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윤석열 33.9%·이재명 27.2%·이낙연 13%

정세균 4.7%·최재형 4.5%

PNR리서치 대권 적합도 조사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이른바 X파일 논란 등 연이은 악재의 여파로 30% 초중반대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반면 이 조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범야권 대안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했다.

PNR리서치가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을 꼽은 응답이 33.9%로 집계됐

다. 이는 1주일 전 같은 조사(39.1%) 대비 5.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7.2%로 1.0%포인트 오르며 2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3.0%, 정세균 전 국무총리 4.7%로 각각 집계됐다. 전주까지만 해도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이지 못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4.5%를 기록, 5위에 올랐다.

이밖에 무소속 홍준표 의원 4.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3.1%, 정의당 심상정 의원 1.8%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최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